

# 강 의 계 획 서

과 정 명	2024년도 문학특강	강 사 명	박준
강의기간	2024. 9. 10.(화) 14:00-16:00	재 료 비	0원
강의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론형 <input type="checkbox"/> 실습형 <input type="checkbox"/> 이론+실습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강의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type="checkbox"/> 학습자 참여학습(발표 등) <input type="checkbox"/> 실습 작업 <input type="checkbox"/> 개별학습(개인지도) <input type="checkbox"/> 수준별학습 <input type="checkbox"/> 현장실습(외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강의소개	인문학과 시를 내 삶의 한가운데로 불러들인다.		
강의목표 및 개요	우리 곁에서 빛을 내는 일상이 어떻게 문학으로 변모되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좋은 시를 읽고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문학과 함께하면 삶의 아름다움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물 것입니다.		
강의주제 및 내용	<p>○ 주제(title): 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p> <p>○ 내용: 시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든 찾아들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쑥 좋은 것을 마주할 때와 닮았습니다. 내가 나인 것이 부끄럽지 않은 시간과 스스로 진심인 마음들이 이어질 때, 세상 좋은 것을 비로소 좋다고 느끼게 되는 것. 한발 다가가거나 당겨오는 것. 그러니 새로운 시를 만난다는 것은 온전히 나의 고요와 덕분입니다. 저 역시 매일 시를 읽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럴 수 없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희열을 느낄 때 도통 시집을 펼치는 법이 없습니다. 축배를 들거나 울어야지요. 아울러 혼한 일이지만 마음에 들불 같은 슬픔이나 화가 일어설 때 시의 낱말들이 제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울음을 참거나 아니면 울어야지요. 앞이 희뿌연도록.</p>		
강의시 필요기자재	PC,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및 칠판		
비고			

# 강 의 계 획 서

과 정 명	2024년도 문학특강	강 사 명	안세홍
강의기간	2024. 9. 27.(금) 14:00-16:00	재 료 비	0원
강의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론형 <input type="checkbox"/> 실습형 <input type="checkbox"/> 이론+실습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강의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type="checkbox"/> 학습자 참여학습(발표 등) <input type="checkbox"/> 실습 작업 <input type="checkbox"/> 개별학습(개인지도) <input type="checkbox"/> 수준별학습 <input type="checkbox"/> 현장실습(외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강의소개	한일간만의 역사 갈등이 아닌, 아시아 각국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들의 전쟁과 인권, 평화를 위한 강연		
강의목표 및 개요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말을 많이 듣고 있지만, 막상 떠오르는 단어 소녀, 일본, 등 몇 개에 불과함.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아시아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접함으로써 이 문제의 시야를 넓히고, 아시아 전체의 인권과 평화 역사 문제로의 인식 전환의 기회를 갖는다.		
강의주제 및 내용	○ 주제(title):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  ○ 내용: - 일본군이 전쟁을 일으킨 아시아 다른 나라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는 왜 알 수가 없을까. - 한일간만의 역사갈등에서 아시아의 문제로의 인식 필요 - 최초의 위안소: 상하이 다이이치살롱, 아시아 곳곳에 남아있는 위안소 - 이중통역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한 맺힌 그녀들의 이야기 - 오랜 시간 지나 토막난 기억들, 사라지는 그녀들 시간이 없다. - 나이가 들어 기억은 잊었지만 트라우마는 남아있다. - 기록이 쌓여야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 - 기억하지 못하면 아픔의 역사는 반복된다.		
강의시 필요기자재	- 빔프로젝터		
비고			